



2022 K리그1 2월 19일 ‘킵오프’

11월 개막 카타르 월드컵 여파로 역대 가장 이른 개막
‘바르사 유스’ 백승호-이승우 격돌... 제주-울산 맞대결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2022년 한국프로축구 K리그는 역대 가장 이른 2월 19일에 개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2시즌 K리그1 1~33라운드 일정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2022시즌 K리그는 역대 시즌 중 가장 이른 2월 19일 막을 올린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개막하기 때문에 K리그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됐다.

새 시즌 K리그1 공식 개막전은 2월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수원FC 경기다.

지난해 K리그 사상 최초의 5연패와 역대 최다인 통산 9번째 우승

을 이룬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지난해 승격팀 돌풍의 주인공인 수원 FC의 맞대결로 새 시즌 시작을 알린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전북)와 이승우(수원 FC)의 K리그 무대 첫 만남으로도 관심을 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대구FC와 FC서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 간 경기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2시에는 제주Utd-포항 스틸러스, 강원FC-성남FC의 경기가 열리고 같은 날 울산 현대-김천상무의 경기가 개최된다.

라이벌 팀 간 대결도 기대를 모은다. 2019시즌부터 3년 연속 우승을 다뤘던 전북과 울산은 3월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처음 격돌한다.

울산과 포항의 첫 ‘동해안 дер비’는 3월 20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서울과 수원의 첫 ‘슈퍼매치’는 4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한편 전북, 울산, 대구와 K리그2(2부) 전남 드래곤즈가 참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4월 15일~5월 1일)와 토너먼트(8월 19~28일)기간에 K리그1은 휴식기를 갖는다.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 이전 마지막인 33라운드는 9월 18일 치러진다.

연합뉴스



치열한 퍽 쟁탈전 1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린 NHL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와 애리조나 코요테스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퍽 쟁탈전을 하고 있다. 이날 골케 애리조나는 토론토를 2-1로 꺾었다.

연합뉴스

‘터지는’ 서브에 울고 웃는다

“레바논행 티켓 끊어라”
벤투호 승선 경쟁 치열

남자배구 역대급 순위 경쟁
전력 평준화로 변수 더해져

프로배구 남자부 정규리그 순위 경쟁이 ‘역대급’으로 뜨거워진 이유로 서브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배구계 용어로 서브가 ‘터지는’ 팀이 이긴다. 서브는 이제 경기의 양념이 아니라 메인 요리가 됐다.

우리카드는 12일 KB손해보험을 세트 스코어 3-1로 따돌리고 8연승을 질주하며 대한항공·KB손보 선두권 두 팀과의 격차를 승점 4로 줄였다. 적시에 터진 쌍포 나경복, 알렉산드리 페헤이라의 서브 폭격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서브는 곧 자신감이다. 나경복은 “최근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서브 리듬이 좋다”며 “서브 범실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서브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상대 서브를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 각 팀은 서브에 열심히 공을 들인다.

서브 순위를 보면 KB손보의 주

포 노우모리 케이타(세트당 0.888), 삼성화재 카일 러셀(0.744), 알렉스(0.439), 서재덕(한국전력·0.375), 나경복·조재성(OK금융그룹·이상 0.366)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팀 서브 성공률 1, 2위를 달리는 KB손보와 삼성화재는 이번 시즌 대표적인 서브앤드 블로킹 팀이다. 강서브로 리시브를 흔들고, 볼을 제대로 배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때린 볼을 블로킹으로 제압하는 전략이다.

공격의 시작점인 서브는 이미 강력한 무기가 된 지 오래다.

다만, 서브는 기복이 심하다. 훈련 때 서브를 잘 넣었다더라도 실전에서 잘 터진다는 보장은 없다.

경기 상황에 따라 서브를 넣는 선수의 심리는 달라지고, 서브의 질도 바뀐다.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더라도 각 팀 감독이 개입하지 않고 선수들을 더욱 격려하는 게 요즘 추세다. 서브의 위력이 그만큼 커져서다.

전력 평준화에 서브 변수가 더해져 이번 시즌 남자부 경기는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제주 Utd 거침없는 전력 강화 행보

K리그2서 골키퍼 문경건 영입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골키퍼 문경건(26·사진)을 추가 영입하며 막강한 골키퍼 전력을 구축했다.

각급 연평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문경건은 2017년 일본 J2리그 오이타 트리니타에 입단하며 눈길을 끌었다.

2021시즌을 앞두고 대구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데뷔했지만

부상과 부침으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7월 K리그2 안산 그리너스로 이적했다.

제주는 문경건이 공중볼 장악과 빌드업에 능해 남기일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지는 골키퍼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문경건은 “그동안 K리그에서 내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다. 내게 붙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고 싶다”면서 “팀에 빠르게



녹아들어서 최고의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차세대 축구꿈나무 왕중왕 가린다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
제주 6개 팀 등 32개팀 참가

차세대 축구꿈나무들이 왕중왕을 가리는 ‘제23회 탐라기전국중학교 축구대회’의 막이 다음달 오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시체육회는 오는 2월 14일

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에 지난해 우승팀인 경기일산아리U-15와 제주 6개팀을 비롯한 11개 시도 32개팀 참가가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 신청은 종전 24개팀에서 32개팀으로 확대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

는데, 12일 대한축구협회 참가신청 사이트 오픈 1분만에 신청이 완료됐다.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외 5곳에서 치러질 이번 대회는 4개팀 8개조로 편성해 폴리그 후 1·2위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한편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는 제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와 제주도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운 물류센터